

하나님의 저주 사이에 명백한 구분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저주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예, 신 30:1; 29:26; 27:14). 그렇지만 하나님의 저주는 항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저주를 해결하실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계 22:3 참조).

(3) 저주 소원 형식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인간의 저주보다 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길 구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하나님으로 원수를 저주하도록 구하는 저주형 기도가만 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저주형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1) 이 형식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arur)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원수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도록 간청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저주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결코 명령하지 않는다. 그는 ① 하나님을 부르지 않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저주에 동의해 주시길 바라거나, ②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 간청을 이루어 주시길 구하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런 기도는 시편과 예레미야의 '고백'에 많이 나타난다(렘 11:20; 12:3; 17:18; 18:21~23, 시 69:24~26, 28; 58:7~9 등). 이것이 보다 확장된 형식은 욕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곳에 나타난다(욥 3:3~10).

2) 시편과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저주 소원'은 결코 주술적이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윤리

적이고, 신정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시나 산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시인들은 혹독한 저주 소원을 말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적개심과 분노를 해결하였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시길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소위 '저주 시편'에도 주술적인 저주 개념은 나타나지 않으며 인격적인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인간의 저주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구하게 되었다.

4. 창세기에 나타난 저주의 몇 가지 사례들

창세기에 나타나는 몇몇 저주의 본문들은 여러 가계저주론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본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새롭게 음미해 보고 그들의 입장을 검토해 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1) 이담과 하와의 타락과 뱀과 땅이 받은 저주(창 3:14, 17)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다'라는 동사가 처음 등장하는 이 구절에서는 "여호와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한다. 여기에서 뱀은 동물로서의 뱀과 '유혹자'로서 영적인 실체가 함께 포함된 존재이며 그가 받은 저주는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과 그